

# 설 연휴 응급실 공백 없도록 수가 가산율 300%로 ↑

당정, 전국 413곳 전담 관리관 배치  
문 여는 병원·약국도 최대치로 확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최대치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응급실에는 전담 관리관이 배치되고, 응급실 야간·휴일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연휴 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 응급의료체계 유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운영을 독려·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일대일로 매칭해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다.

또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연휴 기간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200%에

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은 원래 평일의 150%였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올랐는데, 이번 연휴에 추가로 상향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시설의 수가도 가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흡기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협력병원 197곳이 환자를 진료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소아 환자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운영을 최대한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표본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국민 대상 정보 안내에 힘쓸 예정이다.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계속 지원한다. 또 치료제의 재고 물량을 관찰하는 한편 정부의 비축분 활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환율·물가 우려에…한은, 기준금리 동결

1470원대 유지 땀 물가 0.15%p 올라  
국제 유가 동반 상승 땀 임팩트 더 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첫 번째 이유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들었다. 그는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이나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끝으로 "앞선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맹수열 기자

## 사회문제 된 문해력 교육부가 해결 나서

온라인 자가진단·학습자료 서비스

사회 이슈로 떠오른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기초 문해력은 물론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16일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le.or.kr)를 통해 다음 달부터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활용해 기초 문해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이 금융·교통·건강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서나 고지서를 읽는 요령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또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인 '한글햇살 버스'를 기존 3곳에서 5곳 안팎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글햇살 버스는 키오스크·스마트폰 배달 앱 등을 활용한 음식 주문 같은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알려주는 현장형 서비스다. 맹수열 기자

## 보훈부, 청소년 창의·참여형 '보훈해봄 프로그램' 공모

국가보훈부(보훈부)가 독립,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창의·참여형 청소년 보훈 문화 체험활동인 '보훈해봄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 단체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16일 보훈해봄 프로그램 공모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훈해봄은 보훈부가 예전에 추진했던 보훈테마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일방적 교육보다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나라사랑정신이 스며들게 하는 게 목표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수련시설, 사립 초·중·고·대학교, 문화원 등 청소년 대상 체험형

선정 단체에 최대 3000만 원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오는 2월 5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지역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100여 개의 '보훈해봄 프로그램'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에는 현장평가와 운영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www.mpva.go.kr>)을 참고하면 된다.

강정에 보훈부 장관은 "보훈문화 확산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이번 보훈문화 체험활동을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더 다양하게 보훈의 역사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마련 행안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

정부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도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반영됐다. SRR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이다. SRR이 낮을수록 무거운 눈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젖은 눈)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가운데 설하중(쌓인 눈의 무게) 기준을 개선하

겠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도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반영됐다. SRR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이다. SRR이 낮을수록 무거운 눈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젖은 눈)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가운데 설하중(쌓인 눈의 무게) 기준을 개선하

기로 했다.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이동식 보조기둥 등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장 아케이드 등 부속 시설물의 기둥·지붕덮개 설치도 규격화된다.

또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을 보강하면 풍수해 보힘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